

## 문화유산을 보는 눈

명지대학교

유 흥 준

먼저 문화유산을 보는 저의 기본적인 생각을 밝히고 그런 입장에서 유산들이 어떤 모습으로 눈에 들어오는 지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그렇지 문화유산을 보는 법이라는 것이 어디 따로 있나요. 그냥 보이는 대로 보면 되는 거지.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이, 글세 송기숙 선생님이 『녹두장군』 쓰느라 바쁘셔서 제가 쓴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를 읽지 못하다가 탈고 후 읽으시고 저랑 선암사에서 만났는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참 이상하다’고, 자기는 어려서부터 보성, 벌교, 장흥에서 살면서 산을 보고 바다를 보고 눈에 사계절이 변화하는 것을 보아왔지만, 그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디 글로 쓰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자네가 책에다가 그것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갓 모내기를 한 벼포기들이 눈물에 어른거릴 적에 연두빛이 어찌고저찌고, 아니 뭐 그걸,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얘인데,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 전혀 감지하지 못했던 그 미감의 세계의 한 부분이 있는데 송기숙 선생은 이 땅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오히려 놓쳐버렸던 것이죠. 그것도 요즘의 삶 속에서는 잊혀져 버린 것을 그런 것이 많아요 그리한 것도 요즘의 삶 속에서는 상기시켜 줘야 된다는 것을. 그런 것이 많아요. 그러한 것도 요즘의 삶 속에서는 상기시켜 줘야 된다는 것을 그 분의 경우는 연세가 많아서 잊었던 거죠.

### 뒤가 깊은 우리의 건축양식

마찬가지로 자연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감흥이라는 것을 자연과 교감이 깊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금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고, 그런 것이 우리 문화유산을 보는 눈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나라에 도착하면 느끼는 감흥, 그것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밤에 내리는 사람하고 낮에 내리는 사람하고 그 느낌이 다릅니다.

낮에 내린 사람들의 경우 이야기하는 것이 스카이라인 이에요. 북악산, 북한산으로 이어지는 분지 속에서 삶이 영위되는 곳은 세계에서 서울뿐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우리의 도시들은 어느 지점에서고 자연이 감지되는 로케이션을 갖고 있습니다. 뉴욕의 경우 황량한 벌판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동경에 사는 사람이 삼림욕을 하려면 시속 150-200km로 달리는 하이웨이를 4-5시간 가야만 합니다. 북한산 문수봉에 올랐다가 내려와서 점심 먹고 하는 생활을 하는 도시는 서울밖에 없습니다. 조상으로 부터 물려받은 천혜의 급수강산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오는 거죠. 그 점을 우리는 오랫동안 잊고 살아왔던 겁니다.

실제로 제가 광주비엔날레 커미셔너 했을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이 다 끝난 날 내가 고적 여행은 한국에서 알아주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서 19일 아침에 커미셔너 4명을 데리고 선암사로 가는데 들을 지나면서 바르샤바 미술관장이 논을 가리키면서 저게 뭐냐고 묻더니 같이 가던 프랑스의 장 드 르와지라는 사람이 쌀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논을 이렇게 보기는 처음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눈앞에 산들이 첩첩이 이어지니까 캐서린 홀브라이시씨가 산을 가리키며 자기 나라는 저런 산이 없다고, 자기네는 산 덩어리 하나지 산이 겹쳐서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87년에 미국에 가서 미술사 하는 사람들에게 슬라이드 상영할 적에 한국에 있는 절은 ‘깊은 산 속에’(in the deep mountain)있다고 얘기하니까 알아듣지 못하고 마운틴은 high이지 왜 deep이냐고, 그건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같이 가는 사람들이 다들 저게 동양산수화에 나오는 산이라고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제법 안팎 있는 사람들이라 벌써 느끼는게 달라 보였습니다. 선암사 입구에 들어서면 앞에 육조고사라고 써 있는 현판이 있어요. 만경루의 사물이 걸려 있고 그 뒤로 건물들이 쭉 줄지어 서

있고요. 그때 마침 선암사 스님들이 범패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가기 전에 차안에서 우리나라 절집의 아침에 불 테이블을 틀어주면서 그레고리안찬트와 섞어서 이야기를 해주었죠.

선암사의 구석구석을 한 15분 감상한 후 캐서린은 선암사의 건축을 보면 이쪽에 집이 있고 또 저쪽으로도 집이 있으면서 넓게 펼쳐져 있는 모습이 꼭 한국의 산세가 겹겹이 쌓인 것과 비슷하다며 당신들은 이런 경우에 ‘Deep Temple’이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바로 그거였습니다. 우리 나라 건축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뜻은 뒤가 깊은 겁니다. 겉에서 봤을 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속으로 들어갈수록 깊은 맛이 나는 것인데 역시 미술하는 사람들이라 바로 관찰을 한 거죠. 서양의 건축. 파르케는 신전, 사르트르 성당, 중국의 자금성 등 모든 건축이 하나의 건축적 이미지가 강조된 것임에 반하여 한국의 절은 전체를 둘러본 다음에야 이미지가 잡히니 그 공간개념이 사뭇다른 것입니다. 일본에 가서 유명한 정원이라는 것을 보고 사진 찍으면 세 컷, 네 컷이면 끝납니다.

그런면에서 멋있는 것이 개심사입니다. 서산 개심사에 일본인들과 같이 간 적이 있는데 사진을 찍으면서 녹음을 합니다. “지금 나는 절 입구로 들어와서 풀밭을 지나서 정문을 보며 찍는 것입니다”하고 찰칵! 그러더니 오른쪽으로 돌아 또 찍고, 통나무 건너 찍고 합니다. 왜 그렇게 찍느냐고 묻자 비디오를 준비해 오지 않아서 그냥 사진만 찍으면 개심사에 와서 느끼는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고, 그 때의 기억을 되살릴 수 없을 것 같아 녹음을 하면서 찍는데 이렇게 많은 장면이 나올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경우 단선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뒤가 깊은 맛을 몰랐지만 모르는 가운데 ‘깊다’라는 말을 무의식중에 써오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시골집이건 집 뒤에 뒤뜰이 있잖아요. 집들을 산에 바짝 붙어서 지으면 산사태가 날 우려가 있어 집이 쓸리지 않게 공간을 두었던 거죠. 그런데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뒤에는 장독대도 두고 파리, 과꽃도 심어 그 나뭇의 울타리를 운영하고 있었던 거죠. 작은 정원이죠.

선암사뿐 아니라 어느 절이든 뒤가 깊은 것이 우리나라 건축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것은 카메라의 단선적인 것으로는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절을 돌아보고 난 분위기가 중요한 것인데 우리의 경우 문화

재 팻말은 그 집이 몇 년 됐는지 등등 알아먹지 못하는 글들을 써 놓은 것들입니다. 때문에 문화유산을 보겠다고 간 사람들은 그걸 보고 서 있습니다. 알아듣기 힘든 말을. 그러면서 나는 왜 무식한가를 생각하고 한없이 자신의 무식을 통탄할 수밖에 없게 되죠. 저도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다 이해 못합니다. 허(장허)가 올라가고 소꼬리들보(우미량)가 아름답게 뻗었다고 하는데, 소헛바닥이 올라가게 뻗은 것과 내려 뻗은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어요. 우리 건축에서 중요한 것은 건축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미지인데 외국의 건축에 대해 이야기하는 식으로 단선적인 이미지 하나를 택해서 장중해 보이고 높고 깔끔해 보이는 걸로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진짜 복합적인, 비디오로 담기 전에는 안 잡히는 중요한 미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걸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암사 갔다온 사람이 좋다고 하는데 왜 좋았냐고 물으면 그냥 좋았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그 깊은 맛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선암사에 가서 무슨 물건이 있나 본다면 황당한 거예요. 삼층석탑, 쌍사자탑이 좋다고 하는 건 억지로 좋다는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한니까. 선암사에 있으니까 보물로 지정됐지 경우에 있었으면 논바닥에 굴렀을 겁니다. 오종 종하고 짜재하고 9세기에 만들었다 뿐이지 뭐 대단한 게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너무 친숙해 몰랐던 거예요.

황룡사 가람배치를 보면 좌우 심메트리가 딱 맞아떨어집니다. 지붕과 지붕 사이를 한 칸이라고 부르는데 수덕사 대웅전 같은면 정면 3칸, 측면 4칸에 맞배지붕 집으로 되어 있고 남문은 3칸, 회랑에 돌아가는 중문은 5칸, 9층 목탑으로 된 건 7칸, 뒤에 있는 금당은 9칸, 그 뒤에 있는 강당은 11칸입니다. 3, 5, 7, 9, 11의 홀수로 해서 올라가는데 그 수치가 갖고 있는 의미는 뒤로 갈수록 넓어지고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룡사 절은 평지에 지은 절이에요. 산에 지은 절이 아닙니다. 산에다 지은 절처럼 뒤를 든든하게 막아줄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을 황룡사 터는 필요로 했던 것이죠. 그것은 뒤가 넓으면 앞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보이는 것입니다. 들어오는데 뒤가 허전해 보이면 허망하죠. 유별나게 우리 나라 사람들이 뒤가 허망한 것을 싫어합니다.

황룡사 절터 가람배치에서 기둥의 관계가 뒤로 갈수록 넓어지는 것은 북한의 ‘조선사회과학연구원’에서 나

은 『조선미술사』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 해석에 제가 동의를 하고요. 우리의 자연 속에서 만들어지는 환경에 남들이 가질 수 없었던 풍토적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어쩌면 문화유산을 이해하고 즐기는 것에서,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문화를 만들어내는 데서 이 자연과 풍토와 문화창조가 어떻게 연관됐는지 생각했을 적에 첫 번째 개념이 그거였습니다.

### 자연과 풍토와 문화창조

또한 외국의 풍토 속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 계곡 속에 산사가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9세기 지방호족들이 구산선문을 일으키면서 지방의 사찰들이 크게 번성하게 됩니다. 또 국가에서 경영하게 된 부석사 같은 경우에는 국방상의 요지로서 역할을 겸하기 때문에 지방에 절들이 많이 퍼지게 됩니다. 옛날 전쟁이 나면 절이 연병장이 되는 거였으니까요. 절에 노비만 500~1,000명이 있고, 엄청난 공간이 있었던 것은 군비목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석사가 대표적이죠.

지방으로 사찰을 만들면서 마침 사상적으로는 선종이 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석사나 불국사 같은 경우 축대가 발달했잖아요. 그 이유는 산지형을 따라 절을 지으면서도 평지 기분을 내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거죠. 토함산 기슭에 절을 지으면 그 산기슭의 선을 살려가면서 지으면 되는데 불국사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경주의 황룡사처럼 장엄한 화엄질서의 빈틈없는 짜임새를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축대를 25년이나 걸려 높이 쌓은 거죠.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고.

9세기 이후 선종사찰의 경우에는 선종이 가지고 있는 호방함, 자유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그 절에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가람배치에서 중요한 것은 그 계곡의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 집의 제 위치를 정했던 거였습니다. 우리 나라 건축의 개념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마곡사나 실상사 같은 절을 보면 내를 건너가서 절을 지었거든요. 속세와의 차단 효과와 함께 인간의 심리적인 면을 고려한 것이죠. ‘입해출송’이라는 말이 있어요. 해인사는 들어갈 때가 멋있고 송광사는 나갈 때가 멋있다고. 실제로 해인사는 들어갈 때 기분이 좋아요.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고, 송광사는 그저 들어갔나 보다 싶는데 나올 때가 멋있고. 왜 그런지는 연구를 해봐야 말의 뜻을 알겠지만

요는 진입로가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 자연의 숲길이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속세의 절에 들어가는 사이가 걸어서 약 20분, 길어도 30분인데 그 기간이 속세도심의 삶의 감정을 청소하고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이죠.

세계지도를 처음볼 때 미국의 주를 보니까 직선으로 끊어지는데 우리 나라는 도를 나누면서도 이렇게 똑바르지 못하고 꼬불꼬불하나 하며 왜 우리 나라는 이렇게 못났냐에 대해서 생각했었죠. 왜냐하면 내가 초등학교 5학년때 담임선생님이 한 나라가 문명국이나 아니냐는 그 나라에서 설탕을 얼마나 먹느냐로 안다는 겁니다. 우리 나라에는 원래 설탕이 나질 않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나라가 얼마나 못났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발견을 했던 겁니다. 우리나라는 경기도가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생기고, 미국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어서 미시시피강 줄기가 구부러진 것 빼고 모두 직선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그것에 대해 바로 아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우리는 그런 조건 속에서 자연을 경영했고 그 속에서 경영하는 방식이 있었던 거죠. 이것을 미국이나 로마나 그리스, 유럽, 일본 교토나 오사카같이 속이 넓은 평지에 있는 것과 비교해서 우리 나라는 공력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알았죠. 인간의 공력이 부족해서 자연을 경영하지 않고 자연에 내맡겨 왔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건 불성실한 것이 아니고 자연과의 조화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행을 같이 간 어떤 미국인 커미셔너의 얘기대로, 자연의 숨결을 그대로 느끼면서 인공적인 것을 집어 넣은 것에 대해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원림(園林)의 미학인 것입니다. 제가 답사기 1권에서 썼던 정원과 원림의 차이, 도심 속에서 주어진 공간에 자연을 재현해 놓은 것이 정원입니다. 그러나 선암사 같은 경우는 원림입니다. 원림은 계곡 속에 집을 포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체가 좋은 것은, 개심사가 선암사가 좋은 것은, 그 전체가 보여주는 자연 속의 조화가 좋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화유산을 따질 때에는 그 전체 분위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것만 집착해서 보니까 가서 보는 것이라고는 유식한 사람들은 문화재에 대해서 써놓은 것이고, 우리처럼 무식한 사람들은 그 소나무가 좋고 공기가 좋고 냇물이 좋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옳은 거였죠.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데까지가 이렇게 힘들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가서 느껴서 좋았던 것, 그게 바로

문화유산 속에서 살아 숨쉴던 것이고, 내가 절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조화를 깨뜨리려고 하는데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원림의 미학을 가지고 집을 포지했는데 지금 그걸 깨버리고 있는 겁니다. 절에는 모두 커다란 운동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건 운동장이 아니고 연병장이예요. 초파일날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것을 위해 만들었다고 하는데 세상에 참 과장한 사람들도 많고 엉뚱한 사람들도 많은 게 일년에 하루 공간을 위해서 산을 깎아야 한단 말예요. 그리고는 364일을 허망한 공간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허망입니다.

기왕에 말하는 김에 서양의 무식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구례 화엄사 가는 길에 섬진강변 위로 다리가 있잖아요. 이쪽에서 보더니 “한국사람들은 다리를 강변에서 높게 짓는다. 물 바로 위에 놓으면 되지” 합니다. 홍수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눈으로 봤을 때는 참 어리석은 거지요. 강은 여기 있는데 다리는 저 위에다가 해 놓았으니까요. 높은 데다가 다리를 놓아야만 했던 이유를 모르더군요. 이것이 우리 노년기 지형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어쨌든 문화유산을 창조해 가는데 우리 이전 사람들은 자연의 숨결과 자연의 생리를 완전히 체득을 해 가지고 자기도 자연의 한 분자로서 거기다가 던졌다고 하는데 매력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들만이 즐길 내용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생겨난 문화적 내용은 다른 사람한테도 가르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marvelous하고 incredible하고 unbelievable하다고 본 사람은 세상에 이런 감동을 줄 수 있는가 합니다.

한국미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미의 특질에 대해서 얘기했던 사람들이 말한 것은 한국인의 특징인지 동양인의 특징인지 잘 구별이 안됩니다. 한국의 아름다움이나 한국미의 특질을 설명하려면 동북아의 보편적인 가치와, 그 중에서도 특수한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했을 때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편하면 다 우리 걸로 이야기합니다.

또하나 한국미의 특징을 자연주의라고 하는데 자연주의 아닌 게 또 뭐가 있습니까?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프랑스, 독일사람들은 자기 문화와 미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독일인의 특징에 대해서는 한번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프랑스 미술의 특징에 대해

서 얘기한 걸 한번도 본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얘기하는 것인가, 그 물음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따지지 않고서는 자기가 가진 문화에 대한 자존심이나 동일성을 확보할 수 없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절에는 그런 걸 따지지만 인간이 만들어 낸 문화 창조 속에서 꼭 자기들이 가진 특수성만 강조했을 때 위대한 문화가 된다는 법칙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개조하면서 더 나은 것으로 가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순수한 뭔가를 따져야 하는 것인가 그 문제에 관해서 다시 얘기해보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변화의 가변성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으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빼먹고서 얘기를 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건축을 통해서 본 우리 문화유산의 특징도 그렇고 건축을 즐길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무엇보다도 건축이 만들어 놓은 분위기, 자연과의 어울림들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 천근감을 주는 여백의 미

그럼 이야기하고 도자기 이야기를 하나씩 할게요. 중국, 일본, 한국 그림이 같은 시기의 그림인데도 달라요. 그건 그림만 다를 뿐 아니라 글씨도 달라요. 냄새가 납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런 그림은 아주 완벽하고 빈틈없이 꼭 찬 구도에 힘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런 그림은 깔끔합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 사람이 그런 건 그리다 만 것 같으면서도 자연스러움이 느껴집니다. 야나기 무네요시가 “한국의 미는 선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중국과 일본과 한국의 세 미술을 비교를 해보면 중국 미술의 본질은 형태 감에서 온다. 형태감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감과 안정감은 힘이고 중국의 미술에서 보이는 억지스러운 과장이 있으면서도 중후한 양감, 볼륨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국미술의 특징이고 일본미술의 특징은 색채가 가지고 있는 명량성, 다자인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조선의 미술속에서는 전체적으로 선의 느낌이 강해서 고려청자의 표주박형 주전자의 선이라든지, 남대문 추녀의 곡선이라든지, 도자기의 선에서 달항아리가 가지고 있는 어진 선이라든지, 동그랑쫄음이면서도 동그런 선을 가지고 있어 웬지 친숙하게 느껴보고 싶고, 그리고 선이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기 때문에 하늘거라고 어디론가 나아가는 것 같은 아주 감상적인 것하고 연관시켜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15세기의 산수화들이 대개 실경을 그린 것이 아니라

관념산수인데 당시에는 낙관을 안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당시에 이수문 등 우리의 그림들이 일본으로 상당히 많이 갔고 일본의 선승들이 여기 왔다가 가져간 경우도 많아요. 일본 대원사의 손까이라는 사람은 1539년에 여기 왔다가 병풍 한 틀을 가져간 것을 그 때 병풍에 기념으로 써 놓은 게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에 그 사실이 써 있지 않으면 일본그림이라고 할 정도로 당시 일본 무로마찌시대 산수화하고 참 비슷해요. 그래서 그것을 와카모토라는 일본사람이 15세기에 있었던 산수화풍을 얘기하는데 어딘지 어수룩하고 손을 대다 만 것 같은 게 있으면 조선 것이라고 말한 이후로 중국 것은 형태가 완벽하고 일본 것은 깔끔하게 디자인을 한 것 같고 한국 것은 어딘가 모자라고 손을 덜 낸 것 같다는 것이 통념으로 통해왔던 것입니다. 느낌상으로는 그 말을 이해를 하지만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은 불쾌하지요. 이 말을 어떻게 뒤집어야 하는지. 아마 자연스럽다, 딱딱함이 주는 거부감이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뭐라고 표현할 줄 몰랐는데 클리블랜드박물관에서 마이클 커닝햄이라고 하는 수석 큐레이터에게 제가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96년 겨울 윤용이 교수(도자기)하고 김광연 선생(민속)하고 나(회화)하고 한 달 동안 미국의 다섯 개 박물관에 있는 한국문화재를 조사하러 갔었는데 그때 클리블랜드박물관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중국미술, 명나라 때 회화사가 전공으로 나는 그이 논문을 읽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분이 양송당 김제라는 선조 때 사람이 그린 <한림제설도>라고 하는 그림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예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그림은 입진왜란 이전에 그려진 그림 중에서 연대가 확실한 그림으로, 안건 이후로 최고의 화가가 양송당 김제니까 아마 임란 이전 그림으로는 둘째간다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내가 83년 일본에 갔다가 야부모토라는 화상(畫商)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집에 가서 한번 보고 소개하는 글도 한번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그림이 없어졌습니다. 그 화상의 손을 떠나서 없어져 버리고 그 화상은 실어증인지 중풍에 걸려 어디로 갔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그림이 클리블랜드박물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내가 놀랐다고. 그 그림 언제 샀느냐고 그랬더니 88년도에 샀다고 하길래 그걸 클리블랜드에서 사게 된 것을 축하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좋은 작품을 수장한 것을, 그 박물관에 그 그림을 보기 위해

가야 할 판이라고 그랬더니 이 분이 자기가 그 그림을 산 거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자기를 알아줬으니. 사람들이 그림니다. 칭찬을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 그 분 얘기가 점심 먹고 자기 방에 가면 그거 살 때 같이 산 다른 게 있으니까 그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을 후닥닥 먹고 난 다음에 그 큐레이터실로 갔더니 중국 그림 하나랑 우리 나라 허주 이징의 그림이 하나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그림들이 상당히 선명해요. 그리고 이징의 그림에 있는 도장이 오세창 선생이 찍은 도장집에 나와있는 그 도장이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가르쳐 주었더니 메모를 하면서 지하실에 가면 하나 더 보여줄 게 있다고 해서 갔더니 그걸 살 때 갖고 왔던 글씨하고 같이 보여줘요. 그러더니 낙관이 없는 산수화, 화폭을 놓고서 어느 나라 그림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물어볼 때에는 한국 것이기를 희망하면서 물어보는 거지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그 동안에 시각적으로 봐왔던 경계선상에서 오가는데 한 30분 동안은 말도 못하고 보기만 했어요. 그림의 구성은 도끼자국 같은 나무가 절벽에 자라다가 옆으로 가지를 뻗어서 또 위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참새들이 날아드는 식의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90% 한국 것일 거다”했더니 그 사람이 “나는 100%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저런 식으로 사물을 보고 표현하는 것은 조선사람밖에 없다. 나무가 자라서 가지를 펴는 것으로 나무를 표현하는 것이지 나무가 자라다가 눈이 없으니까 절벽에 뿔 헤당을 해서 잘라지고 옆으로 가다가 이제 다 왔나 하다 부딪혀서 부러지고 옆으로 가서 올라오고 거기에 새가 날아들고 하는 그와 같은 식의 그림 구도를 잡아내는 것, 이런 나무는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을 수 있지만 한 나무가 자기 삶을 만들면서 자연에 부딪치면서 이렇게 해왔던 이 모습을 그려놓는 것은 조선화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못한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런 그림을 통해 조선의 화가들은 그 하나의 사물을 어떻게 보았으며 그 사물의 관찰을 통해서 무엇을 담아내려 했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있다”고 해요.

한국의 그림에서는 인간이 삶 속에서 살아가는 친숙함과 생활 속에서 몸에 배어 있는 유머 감각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데 미덕이 있다. 억지로 권위 잡아서 철학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헤닝하는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처음에는 대학에서 중국회

화사를 전공을 했다가 박물관에 와서 일본 무로마치시대 그림으로 바꿨다가 지금의 관심은 한국회화라고 하더군요.

그 때 내가 간 다섯 곳 중에 시카고에 있는 ‘인 스티튜트 오브 아트’에는 스티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중국도자기, 일본도자기를 전공했다가 현재는 한국도자기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시애틀에 있는 윌리엄 러스반이라는 사람은 중국불상을 전공했다가 박물관에서 일본불상으로 큐레이터를 하고 현재는 한국불상에 관심이 있대요. 불상을 하든, 도자기를 하든, 회화를 하든 이 세 사람이 똑같이 하는 얘기는 한국미술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친숙감이라합니다. 따뜻하다는 것이지요. 인간미가 있고, 다른 것은 엄숙한데 한국의 경우에는 별거 아닌 거 같은데 불수록 팬찮다고 합니다. 인간미, 처음에는 그 사람 똑똑하지 않은 거 같은데 살다보면 거짓도 없고 인간미가 넘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놀라운 경험이었습시다. 세 사람이 똑같은 식의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것보다 먼저 같은 경험을 했던 것은 87년에 미국 워싱턴의 프리어갤러리에서 인데 거기가 도자기 컬렉션으로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곳이에요. 흑인 아저씨가 모자를 쓰고 있는데 어디서 본 것 같아서 보니까 톰 아저씨의 오두막에 나오면 딱 어울릴 것 같은 분이셨어요. 중국실, 일본실을 지나 분청사기실로 가니 그 아저씨가 서 있었습니다. 나보고 어디서 왔느냐고 해서 한국에서 관광 왔는데 도자기를 좋아한다고 했더니, 자기도 한국도자기를 상당히 좋아한 대요. 왜 좋아하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거기서 20년을 근무했대요. 분청사기실에 오게 된 것은 2년밖에 안되었대요. 올 일이 없었대요. 개밥그릇 같은 거지요. 분청사기라는 것은 중국 청화백자의 오체가 영롱한 테크닉의 완벽성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 신비감에 취해서 중국실에만 있었는데 일본 것을 보니깐 일본 것도 역시 가볍지만 밝고 기분이 좋고 그래서 일본 음식도 사먹게 되고 중국음식도 사먹게 되었대요. 한국 것은 청자, 백자, 분청사기가 있는데 청자까지는 자기가 그래도 좋아했대요. 그런데 분청사기실을 자꾸 오다보니까 중국실에 있으면 분청사기실에서 자기를 부르는 것 같대요. 중국음식, 일본음식 먹다가 한국음식도 먹는데 중국, 일본음식같은 것은 ‘오늘은 먹자’하고 계산식으로 먹게 되는데 한국음식은 분청사기가 그러는 것처럼 자기를 부르는 것 같아서 먹게 된 대요. 그렇게 친근

하게 느낄 수가 없대요. 그 친숙감에 대해서 자꾸 말하길래 내가 말했어요. 사실 나 미술사하는 사람인데 분청사기에서 그렇게 친숙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이나 일본은 자체미의 완벽성으로 당신에게 호소했지만 우리 나라 도자기, 백자나 분청사기 같은 것은 보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또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끌어안는 여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관객이 감상함으로써 일어나는 느낌까지를 하나의 예술형태로 생각을 했다고 하면 당신이 여기서 자꾸 부른다는 것이 어떤 건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더니 아주 좋아하면서 오늘 당신하고 만난 것을 아들한테 전화를 해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 아저씨는 중학교나 나왔을까, 아마 그랬을 텐데 그 사람 뿐 아니라 최고가는 불상, 회화의 전문가들도 마찬가지로 종점은 한국, 조선의 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나라 미술의 미감이 감지하기 높은 고단자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건지도 모릅니다. 손을 댔는지 안댔는지 모르는데 있는 거죠. 완벽하게 만든 것은 금방 알아챌 수 있어요. 그래서 완벽함이 더 거부감이 느껴져서 자연스러운 형태로 바뀌 버린 것이고 그것을 사람들은 덜 만든 걸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럴 적이면 건축가 미스 반 데어 로에가 했던 “Less is more”라는 말이 생각이 나요. 적은 게 많은 거다. 그 말의 유래는 조수보고 건축시안 하나를 그려오랬더니 30장을 그려왔대요.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30가지를..... 그랬더니 미스가 하는 얘기가 하나만 제시하라고. 30개를 하고서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것은 30개를 만드는 것 보다 더 높은 단계입니다. 하나를 가져온 사람보다는 30개를 가져온 사람이 더 위이지만 그것보다 더 위의 사람은 30개를 하고서 하나를 가져온 사람입니다. 똑같은 하나지만 30개의 경험을 가지고서 하나를 제시한 사람하고 그냥 하나를 제시한 사람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별볼일 없는 것 같지만 거기에 뭔가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것이 잘났다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미감의 형태는 많아요. 한국문양대전에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 문양의 예고편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 영남대학교 능화관 전시회에 보여준 건 우리 창고에 있는 예고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남대학에 있는 것만도 그만한 수준에 있는 것이 300개가 있어요. 그러니 전국에 있는 걸 다 합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이것이 창살문양, 떡살문양, 능화관 문양을 만들어 내는데 우리들이 살아왔던 모든 정서가 그 속에 있고 또 지금까지 살

아남은 미술품이나 문화유산들의 경우, 특히 공예품의 경우에는 어떤 한 사람이 시험적으로 해서 우연히 나온 경우가 아니고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것은 대중적 검증을 거친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그걸 좋아했으니 그걸 능화판으로 만들었지 싫었으면 없애버렸거나 다시 만들었겠지요.

나는 한국디자인연구센터를 만들어서 우리 나라에서 그동안에 만들었던 문양자료집들을 원촌사이즈로 제작해 한 100만장 샘플로 만들어두고 싶어요. 지금 다른 사람들이 디자인을 하는 것은 쓸 수가 없는 것이 자기가 변화를 시켜서 놓기 때문에 자기는 그대로 이용을 할 수 있어도 딴 사람이 이용을 못해요. 운학문만 하더라도 고려청자에 나타나는 것이 수백가지입니다.

### 병산서원을 찾아

이제부터 슬라이드를 보면서 합니다.

각 지방의 공립교육기관이었던 향교에 가보면 앞에는 명륜당이 있고 그 뒤에는 대성전이 있습니다. 어디나 다 그렇습니다. 이 대성전에는 공자님이 모셔져 있고 그리고 왼쪽으로는 중국의 맹자, 증자, 순자 하는 아들 자자 열 여덟명 놓고 오른쪽에는 설총, 최치원을 비롯해서 퇴계, 율곡으로 이어지는 18명의 문묘배향자를 모십니다. 향교라는 공간은 공립기관이기 때문에 건축에 있어서 변화가 없어요. 어디에다 지어도 똑같아요. 약간의 비탈이나 평면이나에 따라서만 차이가 있어요. 참 답답한 일인데 우리 나라 건축이 20세기에 크게 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국민학교 건축을 건축가들에게 맡겼더라면 각 지역에 특이한 건축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었을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했거든요. 거리로부터 100m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400m 트랙을 만들어야 하고 또 지붕을 납작하게 해서 어디가나 교실은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또 지금 각 지방에서 지방의 향토 기념관을 만드는 것은 내부부에서 고시한 세 개의 샘플 중에서 선택을 해야지 자기식대로 만들면 안돼요. 지독한 사람들이죠.

대성전 건축을 보면 맞배지붕입니다. 종묘도 맞배지붕인데 맞배지붕은 팔작지붕과 달리 엄숙하거든요. 제사 지내는 곳이니까 엄숙해야지요. 대성전이라는 것은 그래서 감히 변화를 못준다는 공립기관의 특성때문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시대 건축을 이야기할 때 향교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건축은 궁중건축, 그리고

학교기관으로 꼽을 때는 향교인데 향교를 가지고서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 반해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이 서원이었습니다. 최초의 서원이었던 소수서원의 경우 이렇게 많은 건물이 있는데 이것도 처음에는 소수서원에서 도산서원으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는 서원이 가질 수 있는 정형을 지키지 않고 변화를 주어서 다른 서원에서는 이런 구조를 보여주는 것은 없고 도산서원 같은 것이나 병산서원이나 덕천서원 또는 16세기후반에 나타나고 있는 서원들의 경우에는 외삼문이라고 하는 솜대문을 지나서 들어가게 되면 앞에 누마루가 있고 누마루를 지나서 올라가게 되면 서원 본체가 있고 왼쪽에 좌우로 동재와 서재를 넣어서 학생들 기숙사를 만들어 놓은 정방형, 정사각형의 구조를 기본으로 하면서 그 뒤로 외삼문을 만들어서 사당을 만들고, 안채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변화를 줬었습니다. 이 소수서원에서는 처음 만드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 집도 들어가는 입구가 소수서원 건물보다도 훨씬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전에 여길 답사를 가는데 조정하는 분이 따라 왔었어요. 그 분이 소수서원을 둘러보더니 대충 500억 원 되겠다고 그러더군요. 이것이 살아남은 것은 서원의 전통이 아니고 숙수사라고 하는 절터여서 그렇습니다. 절로 들어가는 공간을 이용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입니다. 소수서원 집 중에서 학구당이라는 집, 이것은 기숙사인데 이 뿔마루 나뉘서 방을 두 개 두었는데 이 집이 소수서원 건물 중에서 탄탄해 보이면 막혀 있었을텐데 이 쪽은 트여서 다 보입니다.

우리 나라 한옥 공간의 형성을 보면 남쪽지방의 마루, 대청마루와 북쪽에서 있었던 온돌이 같이 내려와서 대청마루와 온돌이라는 것을 가지고 일자집, 기역자집, 디귤자집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남쪽에서는 온돌이라는 것이 한 칸짜리에 있는 게 환자나 아니면 임산부처럼 몸을 차게 하면 안되는 사람들이 쓰게 특별히 만들었던 것이지 온돌로서 발달해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조선 중기에 오면 한옥의 구조에 딱 들어맞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나라 건축이 크게 빛을 내게 되었던 것이 대청마루와 뿔마루의 발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집에서는 남쪽이기 때문에 서울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마루의 열린 공간이 자유롭고 넓게 펼쳐지게 됩니다. 남쪽 지방으로 가면 루마루의 사용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뿔마루만 하더라도 뿔마루의 기능은 신발 벗고 올라가는 발받침 기능을 하

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더 큰 결정요인이 우리 나라는 긴 겨울철로 인해 난방 문제가 항상 부딪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의 사이즈가 작습니다. 그 대신 여름에는 문을 걸어올리기까지 해서 뿔마루하고 연결을 시켰던 것입니다. 소채원의 광풍각이라든지 아니면 남도지방에 있는 정자, 예를 들면 명옥헌에 있는 조그만 방 같은 것은 겨울에 정자로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문짝을 들어 내서 마루까지 합쳐 공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뿔마루의 기능까지 포괄을 했던 것인데 면분할을 해놓은 것에서부터 이 단아한 모습이 한옥이 가질 수 있는 단아하고 정제된 맛이 아담한 분위기의 소수서원에 있는 이 집이 저는 그렇게 마음에 들고 저런 집 속에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조용하면서 예쁘게 가꾸려는 정서가 배어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겨울에 갔더니 불을 때고 있더군요. 한옥은 불을 때줘야지 자기 생명을 지킵니다. 문화재 보호라고 사람 못 들어가게 해서 망가진 집들이 실은 얼마나 문화재 파괴를 하는가의 대표적인 예인데, 손대지 마시오, 들어가지 마시오 해야 보호가 되는 줄 알지만 사실 들어가 줘야지 보호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병산서원은 서애 유성룡 집안을 모시고 있는데 관리아저씨가 아침 저녁으로 마당을 쓸고 아주머니가 걸레질을 하고 마른 걸레질까지 하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신발을 벗고 누마루에 올라가고 여름에 가면 병산서원에서 채워준다 말이에요. 그런데 불행한 일이 있는데 여자는 안 채워줘요. 그게 안동 양반의 마지막 남은 고집이에요. 남자는 100명이라도 채워주고 모기장도 쳐주는데 여자는 그 옆집에서 자야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병산서원이 유지가 되는 것이예요.

외삼문이라고 하는 삼문을 들어가면 이 앞에 만대루라고 하는 루대를 밑으로 통과해 들어갑니다. 봉정사, 부석사도 그렇습니다. 병산서원이라고 찍어놓고 봐도 뭔가 다른 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 봐야 합니다. 병산서원에 있는 훈장이나 생도 입장에서 보면 봉례문으로 들어가서 만대루를 지나서 동재, 서재를 좌우로 두고 서당 대청마루에 앉아서 뒤돌아보면, 내 카메라는 50mm 표준렌즈를 사용 해서 공간이 다른 사람들 것처럼 시원스럽지 않아요. 이유는 50mm가 가장 사람 눈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찍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 컷으로 보여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고개를 살짝 위로 올리면 여기까지를 담았을 때

가 병산서원이어요. 병산서원이라는 도록을 건축에 남길려면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항용 문짝 찍어 놓고서 병산서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무슨 감동을 합니까. 저 앞산 이름이 병산이거든요. 병풍산이에요. 그래서 병산서원이라는 도록을 건축에 남길려면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항용 문짝 찍어놓고서 병산서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무슨 감동을 합니까. 저 앞산 이름이 병산이거든요. 병풍산이에요. 그래서 병산서원인 거고. 그래서 원림이고, 이 집 사용자 입장에서 저 산이 있고 낙동강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지었다고 하는 사실은 등기부에 올리지 않았을 뿐이지 정신적인 소유권은 거기까지 있는 것입니다. 눈에 들어오는 것은 다 내 것이라고 해서 지은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황당한 개념이 어디 있는거라고 해서 병산서원의 아름다움을 얘기할 때 이런 사진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사다리, 통나무가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대문에서 보면 저기 사람이 있고 저 쪽에 물이 흐르고 있는데 병산과 낙동강과 모래사장과 이 앞에 있는 솔밭과 그것을 전제로 하고 병산서원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누마루에서 사다리 양쪽으로 올라가서 여기 앉아서 누우면 대들보들의 목리가, 그대로 파가지고 들어가는 목리가 그대로 보입니다. 여기 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병산서원에 가면 자고 오는 것이 좋아요. 요즘같이 초생달이 손톱처럼 걸려 있을 때면 초생달이라 좋고 보름달이면 보름달이라 좋고, 가면 사람들이 저렇게 앉아 있어요. 가자고 그래도 일어나지 않고, 아까 봤던 그 병산, 거기 가면 백로가 꼭 날아갑니다. 이발소 그림 같아요 그 사람들이 뉘을 잃고 앉아요. 누구나 똑같이 그럴 거예요.

만대루입니다. 서애 유성룡이 만대루라고 했다면 그거 기막힌 이름입니다. 정여창 고택, 지공리 그 안쪽에 가니 조그만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 이름이 만귀정이었어요. 세상을 살고서는 나중에 늙어가지고 돌아오는 집이라는 말입니다. 그거 참 멋있는 말입니다. 언제든지 늙으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있고 싶지요. 그런데 만귀정이라고 하면 삶의 긴장감이 떨어지는 것 같고 또 강하지 못한 것 같아요. 만대루하니까 늙어서야 와서 마주대하는, 영의정까지 지낸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만감이 교차하는 이름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거기 앉아서 평생동안 학생들하고 공부하면서 있었으면 더 즐거울 수 있었겠다 하는, 자기가 지내온

과거에 대한 무상, 허망까지 포함한 그런 느낌이 들죠. 만대루에서 앉아서 이쪽을 내려다 보면 뒷간이 있는데 2인용 뒷간입니다. 참 예뻐요. 우리 나라 뒷간 중 단독 뒷간으로는 참 예쁘게 이 집일 것입니다. 공동뒷간으로는 선암사 뒷간이 최고입니다. 비오는 날이었는데 우산을 펴 놓고 있는 것은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용중이다 하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여름의 병산서원입니다. 이 서원이 이쪽 병산에 올라가서 망원렌즈로 잡으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 본 만대루가 이집니다. 20세기에 지어도 전통 속에서 지으면 이런 집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집을 헐고 문화재 관리국이 다시 들어가 앉았지요. 이걸 그래도 여기에 장단을 맞추었습니다. 이 집에 살림집이고 여기에는

제사상을 준비하는 곳이고 여기가 문집보관소이고 여기가 서애 유성룡선생의 사당이지요. 밤에는 여기를 잘 못 보는데 달팽이처럼 파 있는 것이 노비들이 쓰는 변소입니다. 바깥에 하늘이 다 뚫려 있는데 달팽이식으로 들어가니까 입구에서는 안이 안 보이는 거지요. 이쪽은 들어가서 디귤자로 꺾여서 안 보이는 거고 험 험 하는 헛기침으로 통하는 구조는 마찬가지로인데 이렇게 좀 다릅니다. 이 집이 이렇게 뒤로 들어갈수록 깊어지기 때문에 앞쪽에서 가지는 단순성이라는 것이 절제와 검소라고 하는 기품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면에서 이 집만 보이는 거하고 들어가면서 새로운 공간이 연출되는 거하고 이걸 서양 오락케 미술평론가들이 'Deep school'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